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훈련동 24일 개소

원자력 안전규제 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맡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 교육훈련동이 6월 24일(월)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은영수 원장은 “교육훈련동에서는 국내외 안전규제 인력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어 국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문을 연 교육훈련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축면적 2,590㎡(785평) 규모로, 3개의 강의실과 1개의 전용 회의실, 2인용 게스트 룸 17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워크숍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장인순)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간 소내 원자력연수원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 산업시설의 결함을 진단하기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기술을 이용한 석유화학산업 공정 최적화에 관한 워크숍’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원하는 이 워크숍에서는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0개국 원자력 종사자 12명이 참석, 방사성 추적자이용 체제시간 분포 측정 및 분석 모델, 방사성 추적자 연구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추적자 제조 등에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게 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 국가간 정보교류를 통해 원자력 분야의기술 향상을 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피아기술(주)

中과 감마선조사 첫 제휴

감마선 조사업체 그린피아기술(사장 박순연)과 중국 산둥성 칭다오 방사선조사센터(사장 류군창)가 조사기술의 교류 및 제휴를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내에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기술교류 및 제휴를 위한 중국 조사시설과의 자매결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그린피아기술은 중국의 천진 상해 북경 대련등에 소재한 보다 많은 감마선 조사시설과 기술정보 및 기술진의 인적교류등을 확대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시 됐던 수입 조사식품의 표시 준수등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한층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 12~16일 중국산둥성 칭다오 방사선조사센터의 류군창 사장 일행 6명의 그린 피아기술 방문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들 양측은 앞으로 상호간 감마선 조사처리에 대한 기술정보 교환, 인적교류, 상호 협력사업등에 대한 전개방안 및 추후 국내 기술진의 답방일정등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칭다오 방사선조사센터의 일행들은 또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식품생명공학팀(팀장 변명우)을 방문, 조사식품의 검지관련 연구시설 및 연구성과등을 보고 받고 방사선응용연구팀 및 연구용 조사시설 등을 시찰한 후 감마선 조사에 관한 산업체 지원 연구체계 및 기술지원 협력사업도 논의했다.

수출용 식품에 첨가되는 원료 및 의료용품, 각종 포장재 산업등에 감마선조사를 이용한 살균 살충 지원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린피아기술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과 특허계약등으로 정부로부터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등을 지정받았으며, 대외수출산업에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에 대한 ISO9002/EN46002 국제품질인증 및 유럽감마선 조사기술 인증인 EN552를 독일 TUV PS로부터 획득했다.

그린피아기술은 국내 최초로 의료용품 분야에서 ClassⅢ에 대한 미국 FDA 등록심사를 마친 상태여서 국제적으로도 최상의 감마선조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회원사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달에 있었던 소식을 RI NEWS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3411-6496 ●담당자 : 이 충 원